

2021년 4월 20일

가족 여러분께,

작년, 어느 경찰관이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누르고 있던 9분 29초간의 시간은 제게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뱃속 깊이 고통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흑인 여성, 자매, 딸, 그리고 흑인 자녀들의 어머니—그리고 이 도시의 유색인종 학생들을 20년 넘게 가르쳐 온 교육자로서 제 인생에서 그런 감정을 수도 없이 느껴왔습니다.

그 고통과 분노, 그리고 공포는 조지 플로이드를 살해한 경찰관의 재판 내내 존재했습니다. 저는 조지 플로이드가 죽는 장면을 거듭해서 보고, 또 본 것처럼 느꼈으며, 미스터 플로이드, 그리고 이제는 그를 잃은 유가족을 위한 정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배심원단과 미국 전체가 사건의 실상을 마주하는 과정에서 매번 그 비극이 새롭게 재연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의를 위한 첫 걸음을 디뎠습니다.

저는 흑인 여성으로서, 경찰의 폭력에 형제를 잃은 제 형제들과 제 어머니와 숙모들을 위해 이러한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흑인 및 유색인종 자녀들이 그들의 소중함을 깨닫기 위해서라도 이번 판결에서 의미하는 책임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너무도 그러하지 못했던 이 세상에서 이 순간의 책임은 우리 학교의 흑인 및 유색인종 학생들에게 그들의 삶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들의 미래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학교에서 하는 일의 근간입니다—우리가 모든 학생들을 위해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입니다. 저희는 학생 한 명, 한 명이 그들의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냥 듣기만 하는게 아니라 실제로 느끼도록 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그들의 교사와 학교 커뮤니티가 그들의 과거와 현재 경험뿐 아니라 그들의 미래의 꿈을 가치있게 여긴다는 사실을 느끼게 하고 싶습니다.

지난 20년 이상, 저는 어린이들이 지닌 감수성과 지혜를 체험하였습니다—그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비록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못한다 해도 말입니다. 그들은 자기 주변 세상의 에너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학교들이 학생들을 위한 안전한 공간이 되어주고 그들이 자신의 감정을 마음껏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학교들은 개방된 대화를 유도하고 우리 학생들이 마음껏 질문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과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한 학생과 교직원들을 위한 정신 건강 지원을 강화하여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감정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지 플로이드를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동안, 우리는 체계적인 인종차별주의, 그리고 이것이 가져온 폭력이 여전히 미국 전역에 매일매일 폭력과 불평등을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없애고 진정한 정의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에 우리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을 최선을 다해 돌보는 매 순간마다, 저희가 여러분을 돕기 위해 늘 여기 있으며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얼마나 중요한지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변치 않을 것입니다.

협력하며,



미샤 포터  
뉴욕시 교육감